



2018년 항공우주 논문상 공모전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해외탐방기회 제공

- 2019 HAI Heli Expo
- 미국/세계 최대 회전익 전문 엑스포
- 기간: 2019년 3월초(3박4일)

| 공모대상 및 분야

- 논문상
- 분야: 정책/경영, 기계/엔진, 재료/소재, 전자/전기

| 응모대상

-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전공불문)

| 논문제출 및 방법

- 논문마감 | 2018년 9월30일(일)
- 제출방법 | E-mail 접수 kaiaward@koreaaero.com
- 수상결과 | 2018년 11월 중순 예정
- 시상일정 | 2018년 11월 말 예정 (추후 통보)
- 문 의 처 | 055) 851-2799, 9797

| 시상내역

	시상구분	시상	부상	비고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300만원	주저자 해외탐방 기회 제공
	KAI CEO상	1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300만원	주저자 해외탐방 기회 제공
	우수상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3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최우수상 논문 지도교수

- 수상자는 당사 채용 전형시 가산점 부여
- 심사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시상편수를 제한 할 수 있음
- 4인 이내의 팀으로 공동 작업 가능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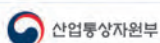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홈페이지 www.koreaaero.com을 참조하십시오.

주최



후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K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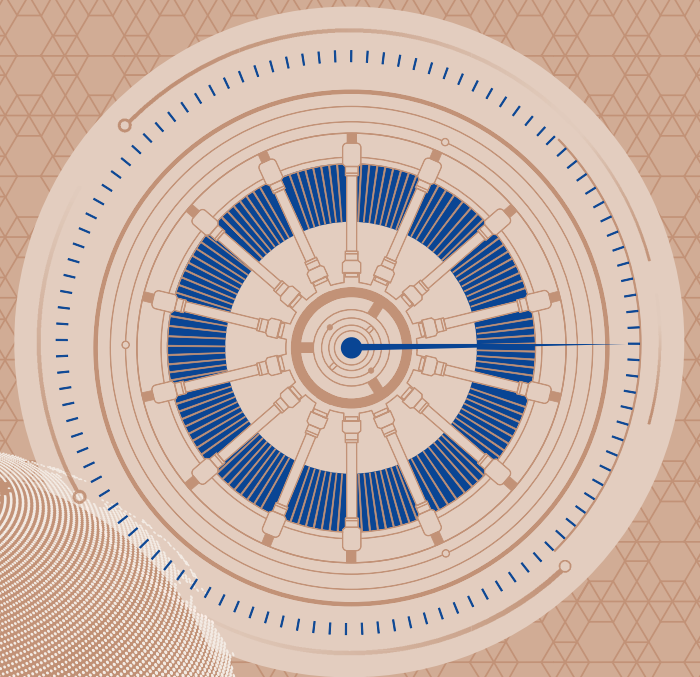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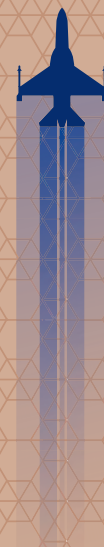
2018 September
Vol. 225

Fly Together

서포터즈 이슈
가속페달 밟기 시작한
KAI의 화려영 드라이브

MAIN THEME
프로정신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라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
에서 KAI서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KAI magazine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2018 SEPTEMBER | Vol. 225

CONTENTS

www.koreaaero.com

스페셜 테마

- 04 MAIN THEME_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행동원칙 실천가이드_도전과 혁신 편③
프로정신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라

서프라이즈 KAI

- 08 서프라이즈 이슈
가속페달 밝기 시작한
KAI의 윤리경영 드라이브
- 14 트렌드 칼럼
도전적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실 정재민 보좌관
- 18 KAI 인문학
최초의 유인기구를 발명한
몽골피에 형제 이야기

인사이드 KAI

- 20 KAI 현장포커스
오는 10월 열리는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 프리뷰
- 22 KAI People
누구나 인정하는 타의 모범이자
진정한 프로
- 24 굿바이! 마스터
2018년 하반기 정년 맞은 선배님들의
퇴직소감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
- 28 패밀리가 간다
KFX임무SW팀 김선일 선임, 항공전자팀
서영진 선임 부부 가족의 부산야경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 2층버스 체험기

위드 KAI

- 42 나눔의 현장
나눔봉사단, 가족과 함께 떠난
태국 학교재건 해외봉사활동
- 46 KAI 북클럽
장비구매팀 권성욱 사원이
김준석 차장에게
- 47 뉴스 브리핑
- 50 독자세상
- 51 독자이벤트

발행일 2018년 9월 5일(통권 225호·9월호·비매품)

발행인 김조원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홍보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담당자 조연진 과장 055)851-6962

제작대행 군디자인연구소 051)796-660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 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14

20

28

32

36

42

프로정신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라

세계 야구계의 진정한 프로페셔널, 스즈키 이치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스즈키 이치로는 1973년생으로 올해 46살이다. 현재 시애틀 매리너스 구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번 시즌부터 경기에 나오는 히트가 현격히 적어지고, 구단에서는 그를 구단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유니폼을 벗지 않고 있는 엄연한 현역 선수이다.

2014년 시즌이 끝난 당시, 이치로는 소속팀인 뉴욕 양키즈에서 짐을 싸야 했다. 직장이 사라진 43살의 중년 외야수를 데려가는 팀은 없었고 이치로는 선수 생활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이애미 말린스로부터 전년도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인 200만 달러로 영입제안이 들어왔다. 메이저리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가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도 있었으나, "돈은 다음 문제이며 내게는 계속 선수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백업 외야수로 마이애미 말린스에 입단했지만 그 해 총 162게임 중 무려 153게임이나 출전해 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구단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치로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젊은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됐으며 다음 시즌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치로는 평소 지독한 프로근성과 자기관리로 유명한 선수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아침식사는 언제나 아내가 만들어준 카레라

이스였다. 점심은 몇 년째 똑같은 종류의 피자만 먹는다. 혹시라도 다른 음식을 먹으면 경기에 지장을 줄까 하는 우려에서다. 모든 일상을 야구에 맞춰놓고 매일 똑같은 날처럼 생활하고 있는 이치로는 15시즌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면서 체중이 겨우 0.5kg 정도만 변했을 뿐이다. 뉴욕 양키스 시절 그의 동료는 이치로가 쉬는 날은 시즌 끝난 다음날과 크리스마스일 뿐 나머지는 매일 훈련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생활방식을 본받아 LA 엔젤스의 투수 겸 타자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역시 지독한 자기관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처럼 이치로는 세계 최고의 프로들이 모인 곳에서 누구보다 철저한 프로정신을 가진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직무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인역량 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페셔널 리즘은 직업인의 기본 덕목이다. 더욱이 우리회사는 항공우주 분야라는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구성원들에게 남다른 프로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과연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에 대하여 알아보자.

프로정신으로 최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KAI인의 행동지침

리더 실천 지침

전문성 향상 지원

구성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내부 지식교류 문화 조성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타 부서의 업무 이해를 위한 지식교류를 지원한다.



개인 실천 지침

전문성 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보채널을 확보하고, 노하우는 기록 및 공유하는 습관을 배양한다.



지속적인 학습

개인의 직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끊임없이 학습한다.



업무에 대한 몰입과 도전

성과창출을 위해 업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프로정신의 구현은 ‘자기존중’에서부터 출발

프로정신의 구현은 자기경영의 시작이라고 한다.

프로정신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 정신을 의미한다. 때문에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프로정신의 출발점이다. 이치로의 경우,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지만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지금은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직업의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필수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프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인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은 자기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로정신을 지닌 전문 직업인이란 내 자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부여해주는 호칭이다. 이를 위해 자기존중의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 자기 존중의 본질은 그저 경력을 쌓기 위함이나 자기 성과만을 위해 알하기보다 본인 일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일에 행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힘들고

지치기 쉽다. 또 억지로 하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자율의 즐거움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만족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기술은 가르침만 있다면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존중의 씨앗이 마음 속에 심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프로는 혼자서 일을 잘해 나가기보다 협업을 통한 팀워크를 즐기는 사람이다. 내부적으로는 팀워크를 살리고 외부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적극적인 사람이 그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회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재상이기도 하다.



역량 높이기 위한 전문지식 습득은 필수요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성에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일하는 모든 직장인은 이미 프로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직장에서 보내는 동안 꾸념하며 보내는 단순한 월급쟁이보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사람만이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프로는 내가 지닌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이라고 한다. 스포츠 이치로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 각계에서 성공한 유명인들을 보면 도전정신과 끈기,

책임감 등을 기반으로 남보다 뛰어난 개인역량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각자의 목표를 성취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형 인재는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 즉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브랜드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올바르게 알고 교육·세미나,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전문지식 습득에 주력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한다면, 나에게 내재된 잠재적인 프로의식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 역시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여 최신 기술 동향이나 업무 진행, 목표와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교육하는 등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업무 중 혹시 모를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완벽한 대응 매뉴얼이며 프로페셔널의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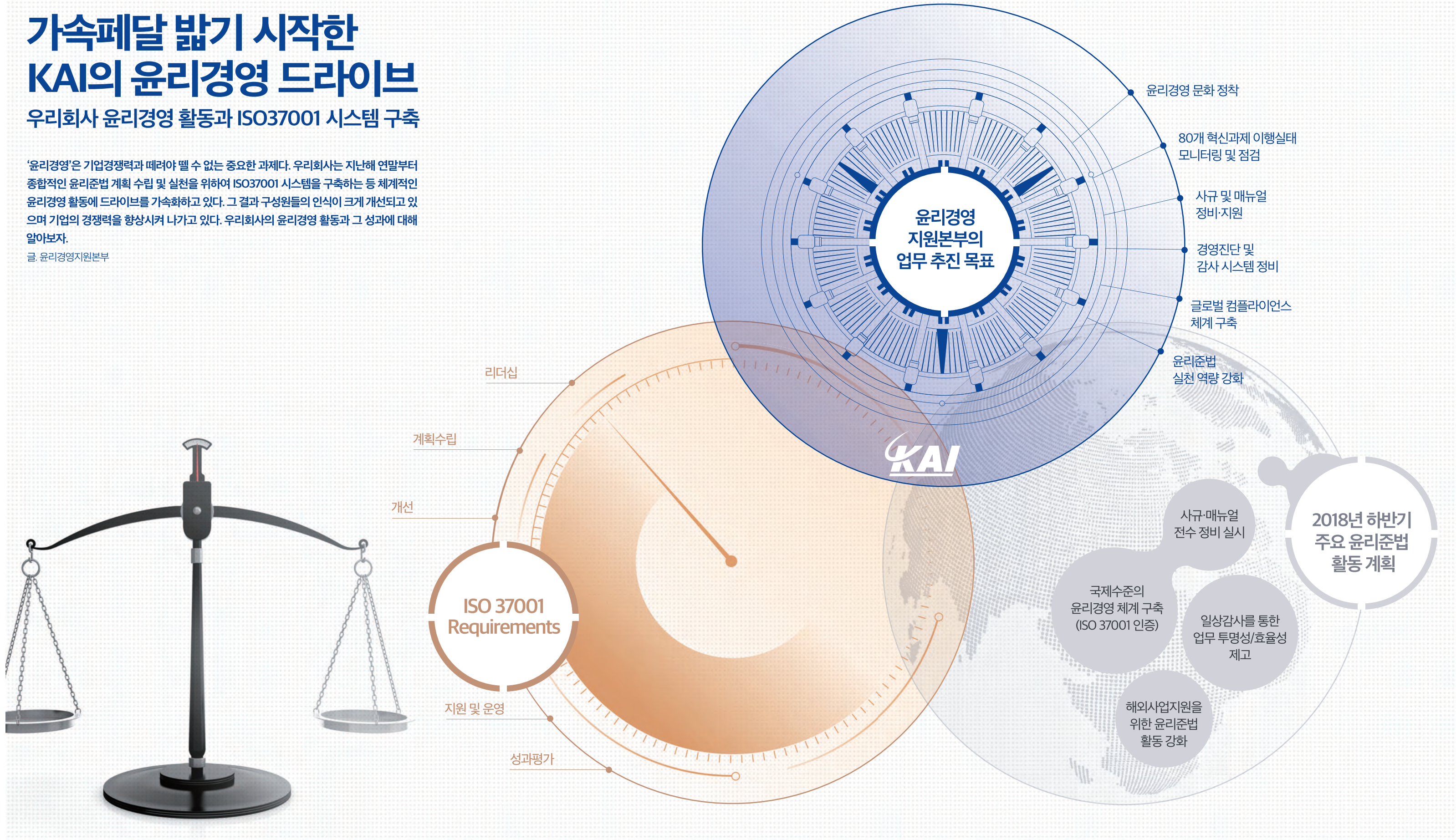
우리회사가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 KAI의 구성원들도 이에 합당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프로는 불을 지피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불을 끄는 사람’임을 명심하자.

가속페달 밟기 시작한 KAI의 윤리경영 드라이브

우리회사 윤리경영 활동과 ISO37001 시스템 구축

‘윤리경영’은 기업경쟁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우리회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종합적인 윤리준법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ISO37001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윤리경영 활동에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윤리경영지원본부



1 윤리경영지원본부 설치로 윤리경영 정착 ‘젠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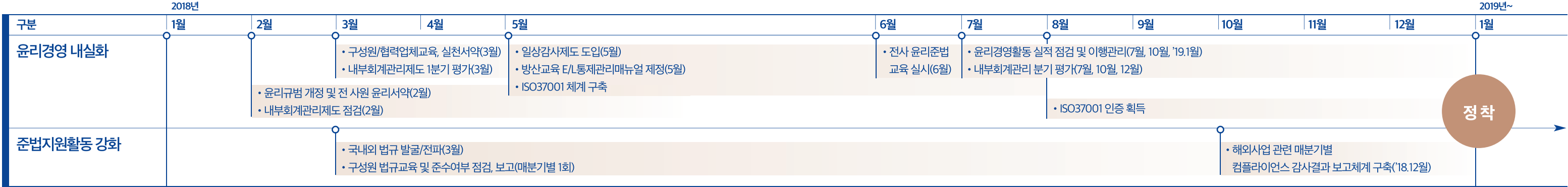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이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비롯해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기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다. 이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각 기업마다 일상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KAI는 CEO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에 따라 윤리경영을 최우선적 가치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사전/사후 감사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예방을 위한 ‘경영진단팀’, 국제 규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팀’, 부패예방 및 준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무팀’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경영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윤리경영지원 본부는 인치가 아닌 제도와 규정에 의거한 경영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경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AI 윤리경영지원본부의
조직과 업무



2018년 윤리경영 정착 위한 추진계획



* 준법통제활동 : 매 분기별 실적 감사위원회 보고

2 지속적인 윤리경영으로 전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취

우리회사는 우선적으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홈페이지 구축, 윤리준법 교육, 콘텐츠 개발, 윤리규범 개정, 내부 회계관리제도 점검, 윤리경영활동 실적 점검 및 이행 관리, 국내·외 법률적 위험 발굴 및 전파, 구성원 법규교육 및 준수여부 점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전사적인 윤리경영 선포식에 이어서 지난 2월 전 구성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실천 서약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윤리준법교육은 수료율 99%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제도와 규정에 의한 경영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사규 및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경영혁신활동 결과에 따라 80여개의 혁신이행과제를 경영목표시스템으로 정착시켜 경영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주관 부서별 과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나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해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으며 일반구매나 시설·공사·용역·시설물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구매계약·자금·협력업체 관리 등 점검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기술자료·사업이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비용·일정·품질 측면에서의 사업이행 위험도까지 체크하여 예방하고자 업무 진단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 미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감사제도 정비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연계 활동 활성화
- 일상감사제도 도입 운영
- 감사인 행동규범 강화
- 감사심의위원회 운영
-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강화 조치

3

ISO37001 도입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

국제적 수준의 윤리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회사가 세계 5위의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하
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
스템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계는 반드시 구축해야 할 과제다. 우리회사와 같이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사업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위반 시 강력한 페널
티와 수출입 금지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게다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이행체계가 갖추
어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 감사에 대한 대응마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수립·이행해 나
가기 위하여 윤리경영지원본부는 회사의 각 사업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
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련부서들이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 표준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국가기관에서부터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윤리경영의 글
로벌 수준을 인증하는 표준인증서이다. OECD나 UN 등 여러 국제기구가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할 뿐만 아
니라, 각 선진국에서 반부패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탄생한 국제
표준화기구의 ISO37001은 각국의 기업과 규모·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인 실행방안을 담은 척도이다.

결과적으로 ISO37001의 도입은 대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따라 강력한 컴플라이
언스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획득하고, 부패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경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우리회사는 그간의 노력 끝에
ISO37001의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8월 말 ISO37001의 기준 심사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인증서는 9월
중 발급받을 예정이다.

우리회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기대효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추진방향



4

구성원 개개인 윤리적 행동의 질적 수준 높여야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경
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투자컨설팅업체 왓슨 와이어트(Watson Wyatt)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정직하고 신의가 있다고 느끼는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몰입도는 그렇지 못한 구성원
보다 56%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몸담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다는 자부심은 기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매년 경영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포춘(For-
tune)지>의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와 함께 발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의 리스트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윤리경영을 통한 끊임없는 경영혁신은 우리회사가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
로서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실천의지가 저변이 깔려 있다. 그런 만큼 구성원 개개인의 윤
리적 행위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기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켜나가 신뢰성 높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도전적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의 초점이 방산비리 근절에만 맞추어져 있다 보니 업계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50년간의 방위산업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법제를 그려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현황

세계 10위 수준

생산액(2016년 기준)
16조 4000억원

고용인력
3만 8000여명

국내 제조업 생산에서 방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0.93%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방위사업의 태동기인 1960년대 후반 이래 방위산업은 ‘첨단국가의 초석’,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중추 산업’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뛰어난 무기의 개발은 전쟁의 판도는 물론 역사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에 어느 나라나, 어느 지도자나 방위산업의 육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현재 방위산업은 2016년 기준 생산액 16조 4천억 원, 고용인력 3만 8천여 명,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6.3명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고, 세계경제 규모 12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세계 10위의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2017년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를 보면, 여전히 우리 방위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되어 전문방산업체의 가동률은 64%에 그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도전적 방위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진정한 ‘첨단 국가의 초석’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화두이다. 국회에도 이를 위해 방위산업 관련 육성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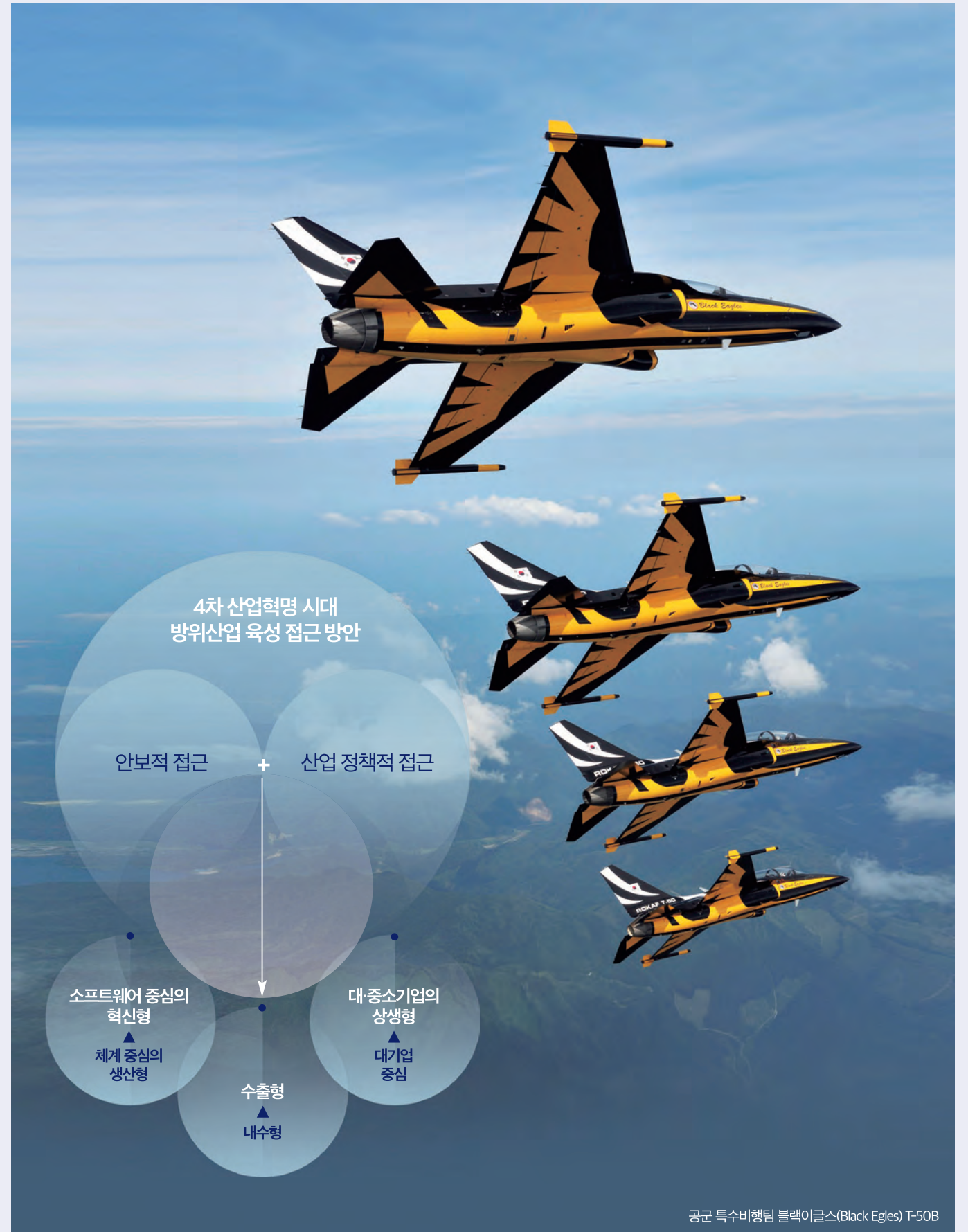
항공기계공업, 변개사업으로 대표되는 초기 방위산업은 특별한 법적 장치 없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된 방위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필수적인 병기 및 장비를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방위산업 육성의 의지가 법으로 처음 제도화 된 것은 1973년 2월

제정된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1972년 12월 국방부가 국방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을 육성해 자주국방체계를 확립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목표’를 발표하면서 출발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군수산업기본계획의 수립, △군수업체의 지정, △보호육성 및 자금융자, △계약의 특례 및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후 1973년 합참의 합동기본군사전략에 따라 1974년 율곡계획이 수립되었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율곡사업이 1981년까지 추진되었다. 당시 율곡사업의 기본방침은 ‘조기 획득, 성능보장, 경제성 보장’으로 설정되었고, 세부적으로는 국방과학 연구와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시급한 과제가 국산무기를 개발하고,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토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였고, 1979년에는 효율적인 군수산업의 진흥발전과 군수물자의 연구개발 및 조달을 위해 자금융자, 병역특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방위산업의 목표는 ‘방위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이었지만, 국내 개발 및 생산능력 부족 등 제대로 된 방산 생태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주도 육성정책이 업체주도로 변경되면서 방위산업체의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1983년 12월 방위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실
정재민 보좌관



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의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국내치안 유지 또는 경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법의 개정으로 '방위산업'이라는 단어가 법령(法名)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87년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도입되고, 방위산업기본계획에 국산화 촉진사항이 추가되는 등 첨단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방위산업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가 방위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시대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 완전장비 국산화뿐 아니라 부품 국산화와 함께 전문화·계열화 제도 시행으로 방산 보호 및 육성의 근간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는 기본병기의 생산과 유지·발전과 함께 첨단정밀무기에 대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울곡비리’로 인해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져 비리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첨단정밀무기에 대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992년 절충 교역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존 물자중심의 방위산업에서 기술 육성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방위산업은 1973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유지되던 법체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6년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획득업무의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운용,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방위사업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1월에는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 방위산업은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후 방위산업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충과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능력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진화하였고 그로 인해 방위산업의 매출액은 2000년 3조 3천여억 원에서 2016년 14조 8천여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방위산업의 수출액도 2000년 5천 537억 달러에서 2016년 25억 6천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 방위산업이 전무하던 시절에서 약 50년 만에 육군 K계열 장비의 국산화, 합정 전투체



계의 국산화, 독자적 전투기 개발 등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50년을 밝혀줄 방위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기 기술과 시스템을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방위산업이 아니라 군사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생산성과 R&D 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과감한 육성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화·계열화 폐지 이후 완전 경쟁체제에 걸맞은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레의 두 축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요가 특정된 비산업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안보적 접근’이라는 축과 기술혁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적 접근’이라는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두 축이 건설할 때 우리 방위산업은 향후 내수형에서 수출형으로, 체계중심의 생산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형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형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보적 측면에서는 현재 핵심기술 연구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무

우리 방위산업의 혁신성장 방안

• 소요 주도형 기술개발

• 민·관·군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개방형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혁신을 이끌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과감한 기술 투자 시 연구개발비를 원가에 보상하는 동시에 혁신적 도전에 대한 유인을 위해 지체상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대한 개발에도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가 소프트웨어 획득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거나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국방 강소기업, 벤처기업이 건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방위산업은 국내 생산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국가 산업이지만 수요가 국한되는 한계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창출을 위한 수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가산정 이원화제도, 한국형 FMS제도와 함께 방산물자 수출시 계약상대국에 대한 철충교역 이행을 위한 각종 근거가 요구된다. 이와 함

께 전문적인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인력 양성과 함께 전담기관의 창설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한 해 약 3조 원 가량 투자되고 있는 국방 R&D 진흥을 위해 소요 기반형 기술개발에서 소요 주도형 기술 개발제도를 도입하고, 갑·을 관계 계약중심의 R&D에서 민·관·군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실패와 재도전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개방형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방위산업이 첨단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방위산업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국가 전략 산업이다. 정부의 규제혁파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군은 첨단정예강군으로, 우리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혁신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찬란한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하늘 위로 사람을 띄워 올려 비행의 시초가 되다

최초의 유인기구를 발명한 몽골피에 형제 이야기



이카로스와 같은 신화 속 인물을 제외하고 인류 최초로 하늘을 비행한 인물은 라이트형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이트형제는 조종 가능한 동력비행기를 제작하고 비행한 최초의 인물이나, 그보다 125년 앞서 인간을 하늘로 올린 이가 있으니 바로 ‘몽골피에 형제’다. 최초로 열기구를 만든 이들의 흥미진진한 발명 스토리와 그에 얽힌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알아보자.



피워놓은 불의 열기로 날아오른 종이봉투에 착안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불꽃을 강하게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로 올리는 원리의 비행기구다. 더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대기 중에서 상승작용을 하므로 이를 활용해 하늘로 기구를 떠올리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공중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기구는 지금으로부터 235년 전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개발해 최초로 유인 비행에 성공했다. 형인 조제프 미셸 몽골피에(Joseph Michel Montgolfier, 1740~1810)와 동생인 자크 에티엔느(Jacques Étienne Montgolfier, 1745~1799)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컸다. 특히 형인 조제프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으며 동생인 자크는 남다른 과학적 지식의 소유자였다.

조제프는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777년 어느 날, 빨래를 말리려고 피워놓은 불에 종이봉투를 집어넣자 그 열기와 연기로 부풀어 오르더니 단숨에 공중으로 날아오르려 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쳤다. 조제프는 대도시 리옹 인근에서 아버지의 제지공장을 맡아 운영하던 동생 자크에게 달려가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함께 기구를 만들어보기로 의기투합한다.

신의 영역으로 여겼던 하늘로의 첫 걸음

1782년 드디어 자신들이 만든 열기구를 가지고 마을 인근의 들판에서 하늘로 띄우는 데 성공한 몽골피에 형제는 이듬해 6월 주민들을 불러 모아 공개 비행

실험을 벌여 열기구를 2,000m 상공까지 날아오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프랑스 왕실에까지 번져 루이 16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국왕은 이들을 초청하기에 이르렀고, 왕과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 운집한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783년 8월 19일 수탉과 오리, 양 등의 가축을 실은 열기구를 하늘로 올려 3km를 비행했다.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몽골피에 형제는 4개월 후인 12월 14일 파리 서쪽에 위치한 유서 깊은 블로뉴 숲에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장 프랑수아 필라트르 드 로지에(Jean François Pilatre de Rozier)와 육군 장교인 프랑수아 로랑(François Laurent) 후작을 태우고 인류 최초의 비행을 성공시켰다. 구경꾼들의 환호 속에서 비행한 이날 열기구는 900m 상공에서 양모와 짚을 태운 약 25분 동안, 무려 9km를 날아가 베르사유 궁전 인근에 불시착했고 탑승자는 모두 무사했다. 이는 인류가 신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하늘을 향해 첫 발을 뗀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 기구의 개발과 보급이 비행기 발명 이전까지 활발히 진행됐다.

가벼운 소재와 효율적인 연료의 보급으로 대중화

몽골피에 형제에 의해 인류의 첫 비행이라는 역사를 쓰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우 원시적이었다. 심지어 열기구의 과학적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이들은 양모와 지푸라기를 태운 연기가 기구를 떠오르게 한다고 믿었고, 기구 안의 공기를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주변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최초의 비행이 있을 열흘 뒤 ‘샤를의 법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자 자크 알렉상드르 세사르 샤를(Jacques Alexandre César Charles)이 수소를 이용한 기구에 직접 탑승해(몽골피에 형제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을 하지 못했다) 약 2시간 동안 43km를 날아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 기구에는 가스 조정밸브가 장착되어 있어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해 하루에 2차 비행까지 성공했다. 다만 폭발 가능성이 높아 이 방법을 따라하던 많은 과학자들이 숨지기도 했다. 몽골피에의 열기구에 탑승했던 드 로지에도 이 방법으로 영국해협을 건너는 시도를 하다가 1785년 폭발로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영국, 미국 등지에서 수소기구를 제작하고 승객을 실은 기구가 떠오르는 한편, 전장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빛을 보기 어려웠던 기구는 1950년대 초 나일론과 프로판가스가 보급되면서 더욱 가벼운 소재로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각국에서 국제적인 열기구 대회도 열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단순히 타오르는 연기로 인해 몽골피에 형제의 기구가 이제는 하늘을 수놓는 레포츠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의 희망을 사천 하늘에 수놓는다

오는 10월 열리는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 프리뷰

사천시가 2004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14화째를 맞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공군과 함께하는 2018사천에어쇼”라는 이름으로 오는 10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사천비행장을 비롯한 사천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관련 참가자와 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시민 및 어린이·청소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번 행사를 미리 찾아가 보자.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 주제로 개최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푸른 꿈을 싣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수놓을 에어쇼와 항공우주엑스포가 사천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테마로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사천 일원에서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제14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열린다. 우리회사와 함께 사천시, 대한민국 공군, 경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공군이 함께 함으로써 행사의 명칭과 연계한 연속성을 유지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 사천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펼쳐지는 유일한 에어쇼인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대회, 항공우주 관련 다양한 체험교육, 전시·홍보, 학술회의, 비즈니스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밝은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에어쇼 비롯 이벤트, 비즈니스 상담회 등 풍성한 행사

이번 행사는 총 8개 분야 73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주 행사장인 사천비행장

에서 개막식 당일 공군 주력기의 대규모 축하비행을 필두로 초음속 항공기 T-50B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전투 탐색구조, 주·야간 체험비행, 항공우주관련 체험 및 전시,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 공군 고공강하, 항공시뮬레이션 레이싱대회 등이 행사기간 동안 펼쳐진다. 에어쇼 이외에도 공군 군악대·의장대 공연, 체험비행 현장 추천, 플래시몹,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의 종이비행기 시범, 사천무형문화재 공연, 사천에어쇼와 함께하는 스트릿댄스, 버스킹, 마술쇼 등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지역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제적인 에어쇼 행사로 거듭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해 국내외 항공부품 구매정책 설명회,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바이어에게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학생의 날을 운영, 교육 및 체험의 장을 열어 미래 항공우주 분야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한다.



각종 공연·항공대회로 행사 분위기 고조 기대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점쳐보는 학술의 장도 마련된다. 10월 25일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과 함께, 10월 26일 우리회사 개발센터 회의실에서는 제3회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세미나가 개최된다.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전세미나는 세션 I과 세션 II로 나누어 각각 정책 분야(공군 주관)와 산업 분야(사천시 주관)에 대한 전문성 있는 항공우주 관련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채로운 공연과 항공대회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어쇼 개최에 앞서 이번 행사의 성공 기원과 사전 홍보를 위해 9월 12일 ‘2018 사천에어쇼 축하 공군 군악음악회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후 2시 관내 학생, 오후 7시 30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열려 국민과 소통하는 공군의 문화를 관객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본 행사가 열리는 10월 25일 저녁 사천종합운동장에서는 국방TV가 주관하는 민·군 화합 ‘위문열차’ 공연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10월 27일 사천종합운동장에서는 전국모형항공기 대회가,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는 국제 PAV 기술경연대회(~28일)도 개최한다.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 행사 일정표

공식 행사	
10/25	13:30~15:00 사천비행장 • 개막식(식전행사 12:50~13:30) 19:00~21:00 사천종합운동장 • 민·군 화합 국방TV “위문열차” 축하공연
10/26	18:30~20:30 KAI 웰빙식당 • 항공인의 밤
상담회 및 세미나	
10/25~26	09:00~17:00 사천비행장(7관중대 격납고) •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10/25	09:00~18:00 삼천포해상관광호텔 •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10/26	10:30~15:00 KAI항공기개발센터 • 제3회 민·군 협력 항공 우주력 발전 세미나
에어쇼	
10/25~28	11:00~12:00, 13:30~15:00 사천비행장 • 공군 축하비행(개막일) • 블랙 이글스 곡예비행 • 시범비행(KT-1, T-50, 전투 탐색구조, 무인헬기 등) • 공군 고공강하 시범 10:00~12:00, 15:00~17:00 사천비행장 • 체험비행(공군 C-130수송기, HH-47헬기, 대학항공기, 경량항공기, KT-1 시뮬레이터) • 야간 체험비행(회)
체험·교육	
10/25~28	10:00~17:00 사천비행장 • 항공기 및 무장·장비 전시/체험 • 항공기 포토 존, 비행복 체험 • 항공과학 체험교실 • VR 체험, 드론 교육 및 체험 • 슈퍼윙스 체험관, 코딩/대쉬로봇 체험 등
학생의 날	
10/25~28	10:00~17:00 사천비행장/KAI/첨단과학관 • 항공관련 진로교육, 특강, 설명회, 상담 및 체험 • 현장견학(KAI, 항공박물관, 첨단과학관)
홍보관	
10/25~28	10:00~17:00 사천비행장 • 사천시, 공군, 연구·교육기관, 산업체, 공공기관 등
이벤트	
10/25~28	오전, 오후 사천비행장 공군 군악대, 의장대 시범 10:00~17:00 사천비행장 • 체험비행 탑승자 현장추첨(오전) • 플래시몹, 버스킹, 무형문화재, 홍보대사 공연 • 사천에어쇼와 함께하는 스트릿댄스 등
항공대회	
10/25	10:00~17:00 사천비행장 •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 • 항공과학 글짓기 대회
10/25~28	10:00~17:00 사천비행장 • 항공시뮬레이션 에어레이싱대회 • 제3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
10/27~28	09:00~17:00 항공우주테마공원 • 2018 국제 PAV 기술경연대회
10/27	09:00~17:00 사천종합운동장 •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교육훈련의 미다스(Midas)

교육훈련팀 오재훈 차장

우리회사가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획득한 KUH-1 전문교육기관 지정에는 불철주야 노력해온 교육훈련팀 오재훈 차장의 숨은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지정은 국내 최초로 헬리콥터 전문교육기관을 인증 받은 것으로, 군 용은 물론 민수헬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민수 파생형 헬기사업으로 산림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납품한 헬기에 형식한정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오재훈 차장은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 작성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오 차장은 평소에도 부지런한 자세로 누구보다 아침 일찍 출근해 일과를 준비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후배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우리회사 입사 전, 오 차장은 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한 경력이 이번 성과를 내는데 큰 힘이 됐으며, 그간 누구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KAI People로 선정됐다. 오재훈 차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알고, 더욱 업무에 전념하는 KAI People이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누구나 인정하는 타의 모범이자 진정한 프로

7월의 ‘KAI People’ 3인



우리회사는 매월 KAI인의 핵심가치 실천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KAI People’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동료들이 추천한 후보 중 선정된 3인을 만나보자.

업무 부담 줄이게 한 다기능화의 리더

기체생산2팀1직 허종화 전문기술원

2005년부터 보잉 787 SEC11을 개발하면서 2013년을 기점으로 월 6대에서 10대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어 3교대 근무가 시작됐다. 그러나 ATL 장비는 1SHIFT 당 4명이어서 1명이 빠져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HDF의 경우 2인 작업이 필수인 공정이라 1명이라도 빠지면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TL과 HDF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 내 기술원들의 다기능화를 시행키로 했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조 내 기술원 총 9명에 대해 2개월씩 ATL과 HDF 장비에 대해 순환근무를 실시했는데, 이때 HDF 장비 OJT를 최고의 베테랑인 기체생산2팀 허종화 전문이 18개월 동안 삶은 내색 없이 언제나 밝은 미소로 후배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원 부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해졌고 HDF 작업자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 주게 됐다. 현재 허 전문은 13년 동안 정들었던 HDF 장비를 협력업체로 떠나보내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KAI People이 될 것이다.

“함께 고생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KAI People에 추천해 준 홍주근 조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구성원 신임 한 몸에 받는 소통 능력자

구조조립생산팀3직 이광기 전문기술원

무한한 자기개발로 항공전기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항공정비사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고루 갖춘 구조조립생산팀 이광기 전문은 F-15 전방동체 와이어 조립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장인이다. 그는 평소 신입사원이나 전입사원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필요한 전문지식을 알려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 전문은 언제나 미소 띠는 얼굴로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업무가 미숙한 후배나 의문점에 대해 문의해오는 구성원이 있으면 자기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는,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구성원의 고민이나 애로사항, 개선해야 할 점을 꼼꼼히 체크해 회사나 조합에 피드백하는 등 원만한 업무처리 실현에 기여했다. 최소 주 1회 이상 주변 동료들과 일과 후 모임을 가지면서 구성원과 소통과 단합을 위한 노력을 펼쳐온 이광기 전문은 소통과 화합의 메신저다. 그는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며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KAI를 응원합니다!

2018년 하반기 정년 맞은
선배님들의 퇴직소감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

평생을 항공산업에 몸 담아온 우리회사의 산
증인들이 정년을 맞았다. 오직 맘과 열정으로
일해 온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4
명의 하반기 퇴직 예정자들의 퇴직소감과 후
배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 ① 개발본부 이진균 전문위원
- ② KFX임무통합팀 송재일 수석연구원
- ③ KFX형상설계팀 고대우 수석연구원
- ④ 구조시험팀 박동홍 수석기술원
- ⑤ 항공기자재직 문성근 수석기술원
- ⑥ 소형헬기구조설계팀 이복우 수석연구원
- ⑦ 최종조립생산팀5직 변대희 수석기술원
- ⑧ 기체생산2팀1직 송선호 수석기술원
- ⑨ 생산지원직 박인수 수석기술원
- ⑩ 조립생산팀2직 정지영 수석기술원
- ⑪ 항공기조립기술팀 임용혁 부장
- ⑫ 상생공정관리팀 임철안 수석기술원

- ⑬ 미주사업팀 차기철 부장
- ⑭ 동반성장검사직 김영조 수석기술원
- ⑮ 구성품품질팀 광병수 부장
- ⑯ 시설지원팀 정성훈 부장
- ⑰ 기체생산1팀2직 권영만 수석기술원
- ⑱ 기체생산1팀2직 배병안 수석기술원
- ⑲ 사업본부 박정수 전문위원
- ⑳ 기체생산2팀3직 이혁우 수석기술원
- ㉑ 소형헬기항전무장팀 이상량 수석연구원
- ㉒ 동반성장검사직 김진만 수석기술원
- ㉓ 최종조립생산팀2직 이상용 수석기술원
- ㉔ 회전익ILS개발팀 김민철 수석연구원





낮보다
아름다운

부산의 밤을 달리다

KFX임무SW팀 김선일 선임,
항공전자팀 서영진 선임 부부
가족의 부산야경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 2층 버스 체험기

영국 런던의 명물 2층 버스는 어린 시절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다'는 로망의 대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층 버스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의 시티투어 버스로 각광받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버스의 지붕에 앉아서 도로를 달리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태풍이 지나가고 아직 잔바람이 남아있던 날, KFX임무SW팀 김선일 선임 가족의 2층 버스 투어에 동승해보기로 했다.

'타요버스'를 좋아하는 두 아이와 함께 출발~

사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회사 구성원들의 가족들은 휘황찬란한 대도시의 야경에 익숙하지 않다. 번잡스러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끝없이 솟아난 마천루와 반짝이는 도심 속 불빛들은 사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매혹적인 정서를 품고 있다. KFX임무SW팀 김선일 선임과 아내인 항공전자팀 서영진 선임은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항구도시 부산의 멋진 야경을 만끽하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도시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에 올랐다. 태풍 '솔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는 뉴스는 오늘 2층 버스 투어를 가기로 한 가족들에게 희소식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의 시티투어 버스는 운행조차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였고, 행여나 오늘까지 그 여파가 있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진이 금방 되는 야경투어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운행하기에 오늘을 놓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웠다.

구름이 점차 걷히고 아직 여름밤의 축축한 바람이 도시를 쓸고 지나가는 저녁 어스름, 부산역 앞 시티투어 승강장에 한 가족이 이미 출발 30분 전 도착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회사 KFX임무SW팀 김선일 선임과 아내인 항공전자팀 서영진 선임, 그리고 의젓한 아들 6살 찬의와 귀여운 딸 4살 리안이다.

평소 부부의 출퇴근 길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온다. 그 때마다 지나가는 회사 버스를 보고 찬의와 리안은 '타요버스'라며 반가워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산의 야경과 함께 큰 버스를 한번 태워주기로 마음먹고 가족끼리의 추억을 쌓기로 한 것이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어도
아빠, 엄마와 함께 했던
2시간 동안의
부산 2층 버스 투어를
두 아이가 오래 기억하길

평생을 함께 할
친구 같은 부부의 애정도
오늘밤을 계기로
더욱 깊어지길



아찔하고 웅장한 부산항대교와 밤바다에 매료

2층 버스 야간투어는 부산의 밤 풍경을 마음껏 즐겨보려는 차원에서 1층에서는 승객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지붕이 없는 2층 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다. 김선일 선님의 가족은 뒤편 자리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아무지게 매고 엄마의 손을 꼭 잡은 리안의 눈빛이 반짝인다. 탁트인 하늘의 달과 별도 함께 빛을 발한다. "리안아 저기 달 보이니?", "엄마 저기 별도 보여요", "우리 리안이가 별도 찾았네? 둥근 달도 너무 이쁘다 그치?" 모녀의 정겨운 대화가 오갈 때 즈음 버스는 부산역을 출발, 영도로 가는 부산대교를 오른다. 다리 밑으로 작은 어선들이 자갈치 방향으로 지나가고 이내 부산에서 제일 높은 다리인 부산항대교로 오를 채비를 한다.

부산항대교는 높이가 70m에 달한다. 나선형의 도로 진입로는 부산에 있는 다리 중 가장 아찔한 높이를 자랑한다. 계다가 키가 큰 2층 버스가 빙글빙글 천천히 회전하며 올라가자 신나게 떠들던 아이들은 금세 살짝 얼어붙었다. 그러나 네온 빛 조명이 반짝이는 길쭉한 주탑과 다리를 잇는 수많은 케이블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자 금방 '멋지다며' 가족들의 탄성이 나온다. 부산항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버스에 몸을 실은 아빠와 엄마, 찬의와 리안은 첫 코스인 부산항대교의 웅장함과 바다를 마음속에 품었다. 다리너머 컨테이너가 수도 없이 쌓여있는 부산항을 지날 즈음, 여기가 제1의 항구도시 부산임을 실감했다.



찬의와 리안은 사내 커플부부의 행복 제조기

사내 커플인 김선일 선임과 서영진 선임은 9년차 부부다. 입사 후 둘은 다른 팀이었지만 한 건물에서 근무했다. 얼굴도 모른 채 조립동 1층엔 김 선임, 3층엔 서 선임이 각기 일하고 있었는데 꽃바람이 불던 화사한 어느 봄날, 햇볕을 받으며 185cm의 건장한 아우라를 내뿜는 남편의 뒷모습이 우연히 서 선임의 눈에 들어왔다. 딱 '저 남자'라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지 물어보기 시작하고, 가끔 동료들과 함께 만나기 시작하면서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연히 지금의 남편도 아내가 내민 손을 기쁘게 잡아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1년여의 연애 끝에 주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골인한 것.

처음에는 대구 여자인 아내와 마산 남자인 남편과의 생활습관이 달라도 너무 달라 꽤나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의

[축복과도 같은
두 아이의 탄생은
행복의 연결고리](#)

[두 아이 사이의
정과 우애가
시간이 지날수록
켜켜이 쌓여져 가길](#)

길로 접어든지 오래다. 서로 이해를 하니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닐까. 축복과도 같은 두 아이의 탄생은 그 행복의 연결고리다.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우고, 어느새 6살이 된 찬의는 커서 엄마와 결혼한다고 하고 리안이는 아빠와 결혼할 거라는 귀여운 소곤거림이 부부를 늘 웃음 짓게 한다.

찬의는 늘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놀이를 이끌어가는 놀이대장, 리안이는 새침하지만 오빠를 잘 따르는 귀염둥이다. 리안이가 오빠에게 소꿉놀이를 하자고 하면 찬의는 자신이 가지고 놀던 공룡모형을 저만치 두고 동생과 함께 흔쾌히 소꿉놀이를 하는 대견함이 믿음직스럽다. '현실남매'가 아닌, 두 아이 사이의 정과 우애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켜켜이 쌓여 가리라.

잊지 못할 부산의 밤을 마음속에 저장

어느덧 버스는 해운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현대적인

광안리 해변 하차, 추억사진 '찰칵'은 필수코스

부산항대교를 지나 10여분 쯤 달리자 멀리 광안대교가 눈에 들어온다. 엄마는 '애들아 저것 봐, 다리가 너무 예쁘지?'라며 아이들의 시선을 유도했다. 찬의와 리안이가 아직 어려서 다리가 예쁜지, 안 예쁜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저 엄마와 아빠랑 부산으로 놀러와 같이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좋다. 바람도 쐬고 이렇게 앉아 엄마아빠랑 실컷 얘기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 것이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광안대교를 보니 곧 광안리가 코앞이다. 지나간 태풍이 선물해준 선선한 금요일 여름밤 덕에 인파들이 많이 나와 거닐고 있다. 광안리 해변 중간 쯤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이 10분간의 포토타임을 가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다. 멀리서 본 광안대교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백사장으로 나섰다. 아이들은 폭신한 모래밭을 만지고픈 유혹을 참고 착하게도 예쁜 포즈를 취해준다. 시간이 흐른 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 한 장이 가족에게 생겼다.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 주말에는 아이들과 집에서 쉬면서 피로를 씻고 충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먼 곳까지의 여행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날만큼 마음을 먹고 부산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려 한다.



도심 야경의 정점인 해운대 마린시티에 내려 잠깐 '영화의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역시 남자인 찬의는 스파이더맨 조형물을 가장 맘에 들어 했고 아빠와 엄마, 리안이는 다른 조형물이랑 유명배우들의 핸드프린팅 등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다. 해운대 해변을 돌아 버스는 광안대교를 타고 지나왔던 길을 거슬러 부산역으로 향했다. 엄마를 닮아 일찍 잠에 들어야 하는 리안이가 온갖 소음과 불어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어도 아빠, 엄마와 함께 했던 2시간 동안의 부산 2층 버스 투어를 두 아이가 오래 기억하길,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친구 같은 부부의 애정도 오늘밤을 계기로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 역시 부산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가 보다.

**테마별로
부산야경의 진수를 감상하는
부산 시티투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편리한 대중적인 투어가 바로 부산 시티투어다. 부산 시티투어는 하루에 한 번 오후 7시 30분 야경코스과 4가지 코스의 주간 코스가 있다. 야경 코스는 예약(인터넷 또는 유선)이 필수이며 선착순 탑승이다. 부산역에서 출발해 부산항대교, 광안리, 해운대를 지나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2시간 코스이다.

예약이 필요없이 낮에만 운영되는 4가지 코스는 부산역에서 출발해 UN기념공원·광안리·해운대 등을 돌아보는 레드라인, 용호만유람선터미널을 출발해 이기대·오륙도를 돌아보는 그린라인, 해운대에서 출발해 달맞이길·청사포·송정·해동용궁사를 경유하는 블루라인, 해동용궁사에 출발해 아난티코브·대변항·기장시장을 거치는 옐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약 및 문의
www.citytourbusan.com / 051)464-9898



명품 부럽지 않은 나만의 명함지갑 만들어 보실래요?

KFX임무SW팀
정재훈·서향숙 선임, 김범준·서준호 연구원의
멋들어진 수제 가죽명함지갑 만들기 체험

인류가 원시시대부터 의복의 소재로 사용했던 가죽은 오늘날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죽의 종류와 화학적인 처리방식, 가공법에 따라 특별한 심미감과 기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되고 있다. 가죽의 세계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헤어지지 못할 만큼 무궁한 매력을 지닌 아이템이라고도 한다. 정재훈 선임을 비롯한 우리회사 KFX임무SW팀이 그 세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낮선 도구들과 생소한 명칭들의 향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일까. 고작 손바닥만 한 명함지갑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다니, 오늘 모인 우리회사 4인방의 이마에 구슬땀이 제대로 맺힌다. 예전 드라마 속 ‘한 땀 한 땀’ 예술품을 만들어 나갔다면 이름 모를 이태리 장인에게 존경심마저 일어나고, 가죽 공예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싶어진다. 무엇이든 허투루 쉽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다.

지난 8월 22일 저녁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솔라’이 제주도 언저리에 닿았을 즈음, KFX임무SW팀 정재훈 선임의 주도로 서향숙 선임, 김범준·서준호 연구원이 경남 진주시의 한 공방에서 질 좋은 가죽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명함지갑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오늘은 두 칸으로 나누어지는 카드지갑을 만들 거예요. 작업에 앞서 사용하실 도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느질하기 전에 밀착압하는 타공판이 있고요. 타공, 즉 바느질 구멍을 낼 때 쓰이는 목타, 밀착압할 때 라인을 잡아주는 디바이더(divider), 똑딱이 단추인 스프링도트(Spring Dot)는 직접 여러분이 달아 주시면 됩니다.”

가죽 공예 ‘초짜’들에게 생소한 도구, 생소한 이름뿐이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감돌긴 했지만, 오늘은 오로지 명함지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온 만큼 참가자들은 심기일전한다.

웃음만은 잃지 않은 여유로운 작업에 몰입

이곳은 진주 충무공동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가죽공예협회 경남지부인 가죽 공방 ‘인아틀리에(In Atelier)’로, 많은 수강생이 가죽공예에 심취해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다. 오늘은 참가자들이 초보이고, 가죽공예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대표인 김승인 강사와 보조인 김수빈 씨가 분주하게 그들의 걸을 끝까지 지켰다.



지금부터 만들 명함지갑의 소재는 부드러운 ‘오픈(ople)’가죽이다. 오픈은 주름진 가죽이긴 하지만 ‘슈링크(shrunken)’ 가죽처럼 수축시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죽 표면에 무늬를 찍어서 주름을 만든 가죽이다. 이날 지갑의 소재로 쓰인 가죽은 실제로 명품 브랜드인 구찌(Gucci)사에 납품되는 가죽과 동일한 재료인 ‘이탈리안 오픈’이다.

먼저 패턴작업을 하고 재단을 마친 가죽을 준비하고 가죽의 단면에 마감제인 엣지코트(edge coat)를 발라주는 작업을 한 뒤, 단추인 스프링도트를 스냅기를 사용해 제자리에 달아준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손이 떨리고 힘 조절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4명의 참가자는 주머니 받거니 대화가 넘친다. 김범준 연구원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마무리 공정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각자의 손을 거쳐 작업해야 하니 지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생길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어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 ① 명함지갑의 칸을
분당하는 모습
② 서향숙 선임과
서준호 연구원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③ 명함 지갑 바느질 장면
④ 차출작업 중 타공할 곳을 잡아주는 모습
⑤ 강사의 설명에 귀기울이는
정재훈 선임과 김범준·서준호 연구원



단추를 달고 주머니 칸 부분을 분당하니 제법 모양을 갖췄다. 그러나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작업이 시작된다. 바로 바느질할 곳을 타공하는 ‘치즐(chisel)’작업이다. 치즐은 디바이더를 사용해 타공할 위치에 선을 그은 뒤, 뾰족한 ‘다이아몬드 목탁’라는 기구를 우레탄망치로 세게 통 내리쳐 구멍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바느질할 곳에 길을 내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 타공해야 한다. 치즐이 삐뚤어지면 바느질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숙련자인 김승인 강사의 손은 노련했고, 이를 따라 하는 참가자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웃음만은 잃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명품 바느질에 비지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한 땀 한 땀의 예술인 바느질’ 작업. 참가자들의 마음만은 이미 명품 가방을 만드는 장인이지만, 가죽 구멍을 통과하는 바느질은 하면 할수록 손끝이 무뎌진다. 오늘 작업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고 그만큼 집중력이 요구됐다. 가죽공예의 바느질은 그 옛날 우리네 할머니가 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단순 바느질이 아니다. 튼튼해야 했고 세밀해야 했다.

오늘 작업할 바느질 기술은 프랑스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사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새들스티치(Saddle Stitch)’다. 새들스티치란 2개의 바늘로 각각의 실이 구멍을 겹치도록 통과해 두 장의 가죽을 이어주는 기술로, 제품을 사용하다 하나의 실이 끊어지더라도 가죽이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바느질이다. 현지에서는 오랜 훈련을 거친 새들스티치 전문가들이 이러한 수작업을 통해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오늘 처음 새들스티치에 도전한 4명의 참가자들이 비지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새롭게 배운 바느질 기술로 인해 그들의 열정이 배어있는 지갑에 대한 자부심은 해외 명품지갑이 부럽지 않을 터, 한 시간을 훌쩍 넘긴 바느질 시간이 비록 낯설고 힘들긴 했지만 바늘을 손에서 놓을 무렵엔 뿌듯함으로 다가올 것이라.

소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추억을 남겼다!

이제 오랜 바느질을 마무리하고 지갑 전체의 단면에 엣지코트를 발라준다. 지갑의 거친 부분을 마감하는 작업으로, 단면 표면의 엣지코트를 말려주면 지갑은 완성된다. 드디어 서향숙 선임과 서준호 연구원은 하늘색 계열의 젊은 분위기의 예쁜 명함지갑을, 정재훈 선임과 김범준 연구원은 브라운 계열의 정장용 느낌의 명함지갑을 각기 소유하게 됐다. 처음 체험해 보는 가죽공예여서 서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성취감은 남달랐다.

정재훈 선임을 제외한 3명의 팀원들은 모두 입사 1년 내외의 신입이지만, 4명이 함께 오래 근무한 동료들처럼 유달리 허물이 없어 보인다. 참가자들 중 홍일점인 서향숙 선임은 “업무를 끝내고 다소 피곤했음에도 오늘 이런 자리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팀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할 정도이니 그들의 친근한 분위기를 알 만하다. 비록 무뚝뚝한(?) 공대생 출신들이라 평소 직접적으로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말이다.

이번 체험에 팀원들과 참여하고 싶어 공모에 신청한 정재훈 선임은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우리회사에서의 본인 명함을 보관하는 지갑을 함께 만든 오늘의 작업이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날의 체험소감을 전했다. 어쨌든 소는 죽어 가죽을 남겼고, 오늘 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질기고 튼튼한 소가죽처럼 4명의 팀원들이 오래도록 절친한 동료이자 선후배로 남길 바란다.

TIP 소가죽의 종류와 특징

카프 스킨(Calf Skin) 생후 1년 미만의 송아지 가죽으로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모공이 작고 부드러우며 가볍다. 광택이 아름다워 의류, 핸드백, 구두 갑피, 벨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샤넬(Chanel)의 핸드백 소재로 유명하다.

킵 스킨(Kip Skin) 생후 6개월~2년 사이의 송아지 가죽으로 세밀하고 매끄럽지만 카프스킨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거친 편이어서 준 고급품의 구두, 벨트, 지갑 등에 쓰인다.

카우 하이드(Cow Hide) 생후 2년 정도의 암소 가죽으로 두껍고 질기다. 이중 출산경험이 없는 암소의 가죽은 ‘캘빈 하이드(Calvin Hide)’라고 하여 더 높은 등급에 매겨진다.

스티어 하이드(Steer Hide) 2년 이상 소지만, 생후 3개월~6개월 이전에 거세를 한 수소의 가죽이다. 매우 질기고 튼튼해 피혁원료로 많이 사용하며 가죽제품 중 용도도 광범위하고 유통량도 가장 많다.

불 하이드(Bull Hide) 3년 이상 자란 거세하지 않은 번식용 수소의 가죽이다. 카프 스킨이나 킵 스킨 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소가죽 중 가장 두껍고 질기지만, 가죽의 특성에 따라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어 명품에 이용되기도 한다.





꽃보다 친구!

입사동기 네 가족이 함께한 좌충우돌 타이베이 자유여행기

대만 타이베이는 TV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의 여행지로 소개된 이후 한국인 사이에서 떠오르는 인기 해외 여행지가 됐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어우러진 듯한 도시 타이베이로 떠난 작년 8월 여름휴가! 우리회사의 ‘꽃보다 네 친구’는 한 여름, 대가족을 이끌고 힘든 여정을 떠났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글/사진. 경영전략팀 황성철 차장



- 1. 홍등거리가 아름다운 지우펀
- 2.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기념당
- 3.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 가득한 예류지질공원 입구에서 강수길 책임, 김석재·황성철 차장, 홍옥표 수석 가족들



대만여행 사전준비 Tip 1.

대만의 화폐는 신 타이완달러 (TWD)를 사용하는데 이중환전 이 필요하다. 가까운 주거래은행 에서 미국달러로 환전 후 현지공 항에서 다시 대만달러로 바꿔야 한다. 원화와 가치를 비교하려면 처음엔 많이 헛갈리는데 대략 원 화의 ¼에 '0' 한 자릿수 빼기 또 는 대만달러의 4배에 '0'을 덧붙 이기 하면 된다.

ex) 10,000원 = 약 270 TWD
(1,000TWD = 37,000원)

자연이 빛은 박물관 ‘예류’에서 여행을 시작하다

대만은 도심 근교지와 이른 바 ‘예스진지’로 구성된 외곽의 관 광지를 둘러보는 코스가 유명하다. 예스진지는 예류, 스펀, 진 과스, 지우펀 지역의 초성을 따서 만든 말인데 핵심 관광 코스 로 구성되어 적어도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대만 여행=예 스진지 투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코스의 맨 앞에 위치하면서 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막 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기암의 절경으로 유명한 ‘예류’를 기점 으로 대만 여행은 시작됐다. 예류 입구에서 15명의 대가족이 한데 모여 카메라 렌즈를 향해 다 함께 입 모아 “김치~!”하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예류지질공원은 워낙 거대해서 이 안에 서도 세 구역으로 코스가 나뉘는데,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 저 선상암 군락을 만나게 된다. 바위 개개의 모습은 큰 버섯이 하늘을 이고 있는 듯 치켜튼 머 리가 인상적이다. 그중에서도 포도 스팟으로 가장 유명한 기 암은 고대 이집트의 왕비 네페르티티의 두상을 닮아 이름 붙 여진 ‘여왕 바위’이다. 높게 틀어 올린 머리와 가녀린 목선, 코 와 입까지 그 선이 선명하게 느껴져 가히 여왕의 옆모습을 그

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현재는 여왕 바위의 목 부분이 침식과 풍화 작용, 그리고 수많은 인파의 손길에 의해 지탱이 위태로 울 정도로 가늘어져 있다.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타이베이 도심으로!

많은 식구가 다 같이 이동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처음 가보는 이국땅의 모든 것은 낯설었다. 기후, 풍습, 언어까지. 모든 것 이 다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고 그만큼 긴장도 됐었는데, 워낙 많았던 한국 관광객 덕을 토틉히 봤다. 타국에서 그 어떤 때보 다 강한 일체감을 느꼈던 사람들 틈에 등 떠밀려 걷다보니 입 국심사도 자연스럽게 완료!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다른 일 행들의 동선에 발맞추다 보니 환전소에서 환전도 척척! 그렇 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타이베이 역으로 향하는 1819번 국 광버스도 타게 됐다. 버스는 자정이 넘은 늦은 새벽까지 자주 들어오니 행여 놓칠 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버스타켓은 왕복행을 미리 구입하면 더 저렴하고 적혀진 날짜에 상관없이 돌아올 때 이용할 수 있 다. 공항에서 타이베이 역까지 약 1시간이 걸리고, 이때 하차

한 정류장과 나중에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정류장은 조금 다르니 마지막 날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움직이는 편이 좋다. 한 가지 더! 사전에 예약한 숙소는 구글 영문주소 외에 간판 사진이나 한문주소를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현지 기사 분들과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원 담아 하늘 높이 천등을 날려보자

양쪽으로 즐비한 천등가게,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과 기념품 가게, 그 중심의 하늘을 수놓듯 두둥실 떠오른 천등이 보이는 스펀 역에 다다르면, 탄성이 먼저 나온다. 앞서 다녀온 지인들의 사진 속에서, 그리고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영화 속에서 보왔던 친근하고 익숙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약간의 오르막을 걷고 나면 깊은 산속에 위치한 기차길 사이로 복잡하지만 마음 넉넉한 시골장터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다양한 색깔의 천등을 하늘 위로 띄울 준비를 마치고 기념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날아간 천등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보인다. 천등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니 자신이 기원하는 소원의 성격에 맞게 색을 골라 생각해둔 멘트를 적어 조심히, 잘 띄워 보내면 끝이다. 어떤 색이든, 소원을 적을 4면이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가족끼리 혹은 함께 간 친구끼리 공평하게 나눠 적으면 될 듯하다. 우리의 소원은 이랬다. APT 수주기원, 로또 1등, 쏘가리 다섯 자, 다이어트 성공, 주식 대박, 가족 건강기원... 저마다의 기원을 담은 이 소원들은 어느 가족의 것인지 맞춰보시라!

오감만족 여행의 진수 맛본 황금도시 '진과스'

진과스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속에 위치한 마을이라 반드시 버스나 자가용 등의 차량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지우편과 가까워 가는 길에 가볍게 둘러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진(진과스)-지(지우편)' 코스 자체를 아예 다음 대만행을 기약하며 남겨두고 떠나는 이도 많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곳 진과스는 220kg에 달하는 순금으로 만든 금괴 관람과 광부도시락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진과스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전쟁포로들이 일하던 광산이었는데, 철로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면서 아무 것도 없던 산속에 마을이 생겨나고 금광촌으로 급부상했다. 거대한 금광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오랫동안 부흥을 이어갔지만 1970년대 들어 금의 양이 급격히 줄면서 지우편과 함께 쇠락해가다가 1990년대 정부에 의해 관광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화성했다. 유명한 220kg 순금 덩이는 옛 금광의 갱 입구 옆에 세워진 황금박물관 2층에서 만날 수 있다. 금을 좋아하는 중화민족은 물론, 수많은 외지인과 관광객 모두 금이 전시된 유리관 양쪽에 조그맣게 난 구멍을 통해 금의 일부를 만져보며 행복한 웃음을 머금는다. 박물관 주변의 철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이곳의 또 다른 명물인 공공식당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판매하는 금광시대 당시 광부들이 먹었던 도시락을 요즘 스타일로 재현해낸 '광부 도시락'이 인기다. 인근의 황금폭포는 강한 중금속의 영향으로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곳도 줄 서서 사진을 찍는 관광명소이다.



대만여행 사전준비 Tip 2.

여행 필수품 스마트폰 데이터는 국내에서 대만 유심칩을 미리 구매하자! 현지 공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5일 기준 LTE 무제한으로 가격은 1만 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행기간 내 중요한 국내통화가 필요하지 않다면 포켓 와이파이나 로밍보다 훨씬 저렴하다. 전기는 일본과 같이 110V로 흔히 잘 아는 '돼지코'가 필요하다. 멀티어댑터 구매 또는 공항 내 통신사별 로밍센터에서 무료 대여도 가능하다.

해거름넉 넘실대는 흥동거리가 아름다운 '지우편'

다음은 예스진지의 대미를 장식해준 지우편으로 앞서 설명한 진과스와 함께 금광 도시로 번성을 누리던 도시였다. 폐광 이후 역시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영화 <비정성사>의 촬영지로 일약 스타도시로 급부상했다. 우리에게는 SBS 드라마 <온에어> 촬영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프가 된 장소로 익히 알려져 있다. 구불구불 끝없이 이어진 비탈길을 따라 늘어선 특색 있는 상점과 먹거리로 유명한 이곳은 길이 워낙 좁고 365일 내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고 해서 '지우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우편의 특징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뷰포인트를 보유한 찻집은 정말이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사진 한 두 컷만 찍고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이 좋다. 산 등턱을 동서로 연결하면서 지우편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인 지산제 골목길에서는 땅콩아이스크림, 누가크래커, 루웨이 등 지우편의 명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잊고 지나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은 조금씩이라도 맛보길 바란다. 고생스럽게 맛있는 걸 찾아서 먹는 것 또한 여행이 주는 즐거움 아니겠는가. 해거름넉, 건물들이 기다렸다는 듯 걸어 놓은 흥동에 불을 밝힌다. 지우편의 하이라이트! 인내를 가져야만 볼 수 있는 진풍경, 넘실대는 흥동이 이루어낸 절경은 인파와 땀에 치인 지옥편에서의 노고를 달래주는 듯했다.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먹방 투어'

우리는 타이베이 역에서 가까운 젊음의 거리 '시먼'에 호텔을 잡았다. 며칠 묵는 동안 매일같이 깔끔하게 완료된 객실 청소, 저녁에 돌아올 때쯤엔 에어컨까지 미리 켜두는 센스도 감동이었다. 뜨거운 한낮의 투어로 지친 몸은 가벼운 샤워 후 맛집을 찾는 것으로 풀었다. 먹거리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만은 값싼 먹방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시먼딩 거리는 어른,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 삼형제빙수, 밀크티와 곱창국수, 중국식 사부사부 튀김이 유명하다. 융강제 거리에서는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줄 서야 하는 맛집 딤타이평을 찾았다. 이곳은 딤섬, 사오롱바오, 새우볶음밥, 우육면 등이 유명하다. 오랜 기다림 후 먹었던 지라 뭐든 맛있게만 느껴졌다. 동먼 역부터 융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맛집을 지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면 소소한 소품과 향이 좋은 바디용품, 향수, 화장품을 살 수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찻집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다. 대만 먹방의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스린야시장도 먹거리가 넘쳐난다. 타이베이 역에서 기차로 30분 걸리니 택시투어 후 마지막 종착지로 부탁하면 편리하다. 숙소가 타이베이역 근처가 아니라면 마지막 날 공항 가는 버스 타기 전, 역 근처 '팀호완'

식당은 꼭 들르길 바란다. 마음이 급해 먹는 시간은 좀 부족했지만 향긋한 간장에 담긴 창평, 빵 같은 만두 차수바오, 새우 사오마이 등 여러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나눠 주문해 먹었다. 강한 향신료의 동남아 음식과는 다르게 대만 음식은 대체로 한국인 입에 잘 맞았고 입 짧은 아이들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여행이 한결 편했다. 굳이 극악처방인 고추장을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고 다만 한국식 얼큰함이 생각난다면 이곳 편의점에서 한국 컵라면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특별한 인연, 지금처럼만 영원했으면

우리 넷은 T-50 초도 설계로 밤을 지새우던 밀레니엄 첫해에 중앙, 후방, 날개 등 서로 다른 파트에서 구조설계 엔지니어로 처음 만났다. 이듬해에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날 좋은 4월 한 달 안에 일주일 간격으로 모두 결혼식을 올렸고, 역사적인 한 일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네 명 모두 나란히 아빠가 됐다. 첫 아이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네 명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가 된 것. 훗날 둘째들도 친구가 됐으니 정말 찰떡같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우리 네가족은 해마다 캠핑이나 가벼운 가족나들이를 통해 기념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는 같은 고등학교의 같은 반, 급우로도 만난 우리의 아이들 역시 그 시절 고락을 함께하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눴던 우리처럼 추억을 함께하는 멋진 친구로 지내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총 15명의 대가족 모두 안전한 여행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제 가족처럼 챙겨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4. 소원아 이뤄져라!
- 감수길 책임 가족
5. 한국의 명동 같은 시먼 거리
6. 신이 난 개구쟁이들
7. 지우편 흥동거리를 걷는 부녀
8. 맛집으로 유명한 '팀호완' 식당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제 : 각양각색 KAI인들의 하루 feat. 유연근무제



사회 전반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어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방안 없이 직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에서는 직원 개인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지키고 효율적인 근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Flexitime)'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KAI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은 여름휴가, 태국에서의 봉사활동

우리회사 나눔봉사단, 태국 학교재건 해외봉사 활동

사진 제공 조립생산팀3직 김철희 전문



태국 현지의 열악한 학교 아이들 위한 봉사활동 떠나

지난 7월 26일 예비에이션센터에서는 우리회사 김
조원 사장을 비롯한 나눔봉사단 구성원과 가족들
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하계휴가를 자발적으로 반
납하고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태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기 위한 출정식이 열리는 날이었
다. 봉사단은 태국 나콘사완주에 위치한 따클리 공
군기지 인근의 반녕땡랑학교(Ban Nongtengrung
School)와 반싸이남팁학교(Ban Sainumtip School)
에서 학교재건 봉사활동을 펼친다. 무더운 날씨 속
에서 힘든 봉사활동이 되겠지만, 참가자들은 행복

해 할 현지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조원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무
더운 여름, 태국에서 흘릴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
이 커다란 결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오고 가는
여정 내내 평안하길 기원한다”며 “단 한 사람도 아
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봉사에
엮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
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열악한 교육시설 탈바꿈

우리회사 구성원 20명을 비롯해 가족 16명, 다문화

1년에 한번뿐인 하기휴가를 뒤로하고, 과감
히 해외 봉사활동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항공료를 자비부담하고, 봉사단원
선정의 공정성을 피하기위해 그 동안의 봉사
실적기준으로 해외봉사단원을 선정 하였다.
해외봉사단원 중에는 우리회사의 구성원 가
족들도 16명이나 있었으니,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태국으로 날아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반녕땡랑학교와 반싸이남팁학교 울타리를 신축하고
아이들과 함께 칠 작업중인 봉사단
2.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비빔밥 만들기
3. 나눔봉사단과 현지 아이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4. 운동장 시설물 준비
5. 축구장을 위해 골대를 옮기고 있는 봉사단



통합지원센터 측 2명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6일 동안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학교재건 봉사에는 봉사성
금 8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봉사참여자들은 여
름휴가를 반납하고 항공료를 자비 부담하여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반녕땡랑학교와 반싸이남팁학교는 경제적으로 열
악한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
한 곳이었다. 봉사단은 두 학교의 학교울타리를 신
축하고 교육기자재와 구급약품, 도서, 운동장시설
을 지원했으며 놀이터와 LED전등을 설치해 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봉사단은 아이들과 친해지는 계기도 만들었다.



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회사 봉사단의 학교재건
봉사활동은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집중 조명을 받
기도 했다.
봉사단 가족으로 참여한 용남고 2학년 최희수 학생
은 이번 활동에 대해 “태국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
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편안
하고 깨끗한 시설에서도 불평이 많았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에도 해외봉사 기회
가 온다면 꼭 참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눔봉사단의 이번 해외봉사는 2017년 필리핀 학
교건축 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해외봉사활
동으로, 앞으로도 항공기 수출국을 대상으로 지속
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6. 종이비행기만들기 교육 중인 이상봉 연구원
7. 학교 외벽 보수 및 페인트칠 작업
8. 색면 분할 그림그리기 수업 중인 박상춘 씨
9. 최두열 책임과 딸 최희수 학생



MY IMPRESSION 나의 태국 봉사활동 스토리

KFX주익설계팀 이상봉 연구원

“잘 사는 것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됐어요”

해외봉사활동에 선발되었다고 좋아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다녀와서 소감문을 쓴다고 하니 많은 아쉬움과 뿌듯함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작년에 입사하고 나서 올해 해외봉사활동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다소 힘들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해 기꺼워하고 고마워하던 모습과 우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들어주던 그들과의 헤어짐, 큰 선물이 아닌 휴대폰 번역기로 써준 작은 인사말 한 페이지에 눈가가 그렇그렁해지던 순수함, 흔한 자기개발서 따위의 책으로는 결코 배우고 느낄 수 없는 진정 사람냄새 물씬 나는 모습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올로(YOLO)라는 열풍과 함께 ‘바쁘다’, ‘일 때문에 정신없다’, ‘그저 잘 살고만 싶다’는 목표만을 위한 속된 핑계들로 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해 가면서 살아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어떤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제 삶과 그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봉사단을 통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을 하고 온 만큼, 다시 작년 5월 처음 봉사활동에 임하던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지 않고, 힘이 들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이 하나 생겼다는 것에 감사해 하면서, 지금의 이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okhun Kap, Thailand & KAI.

기체생산1팀 김용운 수석 아내 박상춘 씨 “비빔밥처럼 조화로운 멋진 봉사단에게 감사”

지난해 필리핀 봉사에 큰 보람을 가졌던 남편의 권유로 이번 태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기도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의 열정이 가득한 얼굴에서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참가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첫날 운동장 주변 울타리와 놀이터의 페인트 작업에 모든 인원들이 뒤흔달 아래에서 땀 흘리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봉사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색면 분할 그림그리기는 아이와 선생님이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지만 스킨십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아주 좋은 그림 3점을 남겼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 백미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비빔밥은 태국에서도 인기였고, 공군 장병들과 관계자들에게 비빔밥을 만들어 대접했는데 모두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애국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재료가 모여서 기가 막힌 맛을 내듯, 서로 다른 가성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비빔밥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현정식 날, 내년에도 또 와 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조그만 봉사가 의미가 있고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는 봉사단원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스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차고 소중한 시간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KFX제어체계팀 최두열 책임의 딸 최희수 학생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으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빠의 여름휴가에 맞춰 KAI에서 주최하는 태국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성수기에 왕복 항공티켓을 자비로 부담하다 보니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용돈에서 제한다고 농담하셨지만, 생애 첫 해외봉사라는 생각으로 설렘과 행여 풍토병이라도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반낭땡랑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더운 날씨 속에서의 봉사활동이었지만, 까맣게 탄 어린 아이들과 맨발의 아이들 모두가 해맑게 웃는 모습, 수업시간에 잘 따라주는 모습 등을 보면서 즐겁게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따로 모여 그날 있었던 문제점과 내일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걸 보고 그냥 몸만 따라온 나는 힘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난생 처음 해외봉사도 가보고 같이 갔던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도 맺어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태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랑 말은 안 통하지만 표정과 마음으로 정을 나누게 되어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수고해주신 봉사단 대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KAI 나눔봉사단원분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사진 찍으시느라 고생하신 지우 아빠(조립생산팀3직 김철회 전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도록 제 ‘썰전’의 상대로 모시겠습니다!”

장비구매팀 권성욱 사원이
김준석 차장에게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존 J. 미어세이머 지음 / 김앤김복스 펴냄

더욱 많은 대화와
소통, 노력에 힘입어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우리회사의 구매전문가로
성장하고 KAI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력으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국제정세에 관해 극적이고도
유익한 내용이 들어 있어
차장님과 함께 대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각자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살면서
접해왔던 관계와 매체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비구매팀
김준석 차장과 올해 입사한 권성욱 사원이 그렇다.
이 두 사람의 간극을 좁히고자 권성욱 사원이
김준석 차장에 책을 선물했다. 어떤 책일지 궁금하다.

세상 바라보는 시각 달라도 우리는 친한 사이

직장 내 선·후배가 취향이 비슷할 순 있으나 생각이 다른 것은 불행일까,
행운일까. 적어도 장비구매팀 김준석 차장과 권성욱 사원은 완전히 다
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친한 사이가 됐다. 바로 ‘대화’
라는 도구가 있기에 가능한 것.

“차장님과 평소 같이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책도 많이 보시
는 차장님에게 깊고 풍부한 견해도 많이 듣고 배울 점도 많은데, 저와 생
각이 조금 다른 점은 좁혀나가고 싶어요.”

올해 공채 15기로 입사한 권성욱 사원은 업무적으로 김준석 차장에게 조
언을 얻는 것 외에도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한다. 권 사원
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김 차장은 반대편인 진보적인 시각의 소유
자다. 그러다보니 곧잘 ‘썰전’이 벌어진다.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하지만, 살가운 성격의 권성욱 사원과 그를 잘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
의 김준석 차장의 성격 때문에 어떤 면에서 ‘대화’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화 통한 소통으로 KAI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그들의 대화에 윤회유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권성욱 사원이 선물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책의 두께만큼이나 묵직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권성욱 사원의 대학원 은사님을 지도했던 세
계적인 정치학자 존 J. 미어세이머의 저서인 이 책은 미국과 중국 등 강
대국 간의 정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을 선물하자 내용을 이리저리 뒤적이는 김 차장에게 책 설명부터 차
근차근 해주는 권 사원은 “이 책에는 국제정세에 관해 극적이고도 유익
한 내용이 들어 있어 차장님과 함께 대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
니다. 차장님, 읽어 주실 까요?”

이에 대해 김준석 차장은 “서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곧잘 티격
대지만, 후배가 준 선물이니 반드시 정독해 보겠습니다. 더욱 많은 대화
와 소통, 그리고 권성욱 사원의 노력에 힘입어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우리
회사의 구매전문가로 성장하고 KAI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력으로
인정받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옳고 그름을 떠나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함)’의 자세로 두 사람이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길 기원한다.

* KAI 북클럽은 우리회사 구성원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동료에게 선물하는 칼럼입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KAI News Briefing

2018 SEPTEMBER



NEWS PANORAMA

01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청춘 고백(Go!back!)’수료식

7월 16일 우리회사는 사천시보건소, 사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와 함께 진행한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운동프로그램인 ‘청춘고백(Go!back!)’의 수료식을 실시했다. 청춘고백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식이, 운동, 교육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40명의 참가자가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10주간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프로그램 진행과 웰빙식 제공, 대사증후군관리 및 식이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한방 침시술을 진행했다. 최종검사 결과 허리둘레가 평균 5.7cm, 비만도가 평균 1.6%로 각각 감소되었고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많은 참가자가 정상범위에 들어오는 성과를 거뒀다.

02

금연성공자에게 금연펀드 조성금 전달 및 수료식

7월 16일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연펀드 성공자 수료식을 실시했다. 사천시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금연펀드’는 금연 도전 참여자가 10만 원, 사천시보건소에서 10만 원 펀드금을 지원하여 조성해 금연교육을 벌였다. 올해 금연 펀드 도전자들은 우리회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 39명의 금연도전자의 금연 선언과 교육을 시작으로 6주 집중상담 및 보조제 지원, 불시검사와 금연캠페인을 통해 금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 6개월간 최종 검사에서 27명이 성공해 69%의 놀라운 성공률을 보였다. 금연펀드금은 총 780만 원으로, 최종 27명이 금연에 성공해 개인당 30십만 원씩 지급됐다.

03

2018년 상반기 협력업체 혁신과제 성과발표회

7월 26일 우리회사는 ‘2018년 상반기 협력업체 혁신과제 성과발표회 및 하반기 Kick-off’를 사내 복합재동에서 시행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우리회사의 23개 협력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날 24개 과제 수행 및 발표를 통해 협력업체의 체질 강화, 원가절감 활동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및 협력업체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04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 조립설계 및 총 조립 완료

지난 7월 말, 올 10월 발사예정인 시험발사체의 조립설계 및 조립이 완료되었다. 우리회사와 항공우주 연구원의 기술진 20여 명은 4년간의 한국형발사체 총 조립사업을 통해 조립설계, 하니스설계, 공정설계, 치공구 및 조립용 장비개발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현재까지 총 3기의 시험발사체 조립을 완료하였다. 최근에는 한국형발사체용 3단에 대한 조립설계와 하니스설계 등을 완료하고 구조체 조립 및 하니스 장착 공정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시험발사체는 한국형발사체의 핵심 구성품인 75톤 엔진의 성능을 실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시험발사체 개발모델, 인증모델을 통해 성능과 기능을 검증하였고 최종 종합연소시험에서는 요구도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NEWS PANORAMA



‘민항기 복합재 일체형 토션박스 구조물 개발’ 정부과제 확정

8월 2일 ‘3D 브레이딩 RTM 공정을 적용한 100인승 이상급 복합재 일체형 토션박스 구조물 개발’ 정부과제가 확정되었다. 본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18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착수되었으며, 국제공동개발팀에서 제안하고 ㈜티포엘, 재료연구소, 경상대학교가 참여해 3년6개월간 약 55억 원 규모로 수행될 예정이다. 본 과제의 목표는 100인승 이상급 민항기의 토션박스 구조물을 복합재 브레이딩 직조방법과 RTM 일체성형 기법을 통해 요구도를 만족시킴으로써 항공기 중량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A320, B737과 같은 100인승 이상 대형 단일통로기의 차세대 파생형 개발 등 대형 민수사업 RSP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잉 특수공정 심포지움 참석

8월 10일, 17일 양일간 우리회사는 25개 협력사 14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에이션센터에서 진행된 ‘보잉 특수공정 심포지움(BOEING Special Process Symposium)’에 함께 했다. 매년 보잉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보잉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협력사들이 참석해 고객 품질 요구조건의 이해 및 협력사의 품질향상 등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체계업체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우리회사 예비에이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2018 대졸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

8월 10일, 정규 입문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67명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이 열렸다. 인재개발팀장의 입문교육 수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수여식은 신입사원 대표 한운탁 사원의 자율실천 결의문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문석주 관리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입문교육과정이 신입사원들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선배들의 노력, 땀, 열정으로 일궈놓은 KAI를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는 핵심인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여식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각자 희망부서로 배치돼 정식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무인 VTOL 기술시범기 비행체 연동시험 종결

8월 24일 무인기실은 월간 기술회의를 통해 지난 7월 5일부터 2사업장 Compass Swing 시험장에서 진행한 무인 VTOL(수직이착륙) 기술시범기 비행체 연동시험의 최종 단계인 비행체 종합 연동시험을 종결하였다. 전기계통 외부전원 전원인가 시험을 시작으로 항공전자, 비행조종계통, 통신계통, 추진/연료 계통을 차례대로 진행한 결과, 마지막 종합 연동시험까지 일정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무인 VTOL 비행체 체계는 내년 2월까지 무인 VTOL 체계 통합을 진행한 후, 9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하여 비행성능, 비행제어 등의 기술·성능시험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KAI 사회공헌활동



사천강 생태보존을 위한 봉어치어 방류 봉사활동

8월 18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사천지역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치어방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우리회사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 200여 명을 비롯해 사천시청, 더 좋은 사천봉사단, 사천시민 약 300여 명이 모여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사천강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페이스페인팅, 항공기 만들기, 풍선아트, 심폐소생술, 간식부스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5만 마리의 봉어치어를 방류하는 메인 활동으로 구성됐다. 나눔봉사단은 지난해 은어 치어방류에 이어 올해에도 봉어치어를 방류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사천지역의 수질 생태계 개선 및 보존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힐링음악회 개최

8월 25일 나눔봉사단은 풀뿌리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늘푸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힐링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우리회사 풍물동아리를 주축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재능을 보유한 단체 및 시민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늘푸른요양원 탁옥경 원장은 “항상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KAI의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한편, 나눔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을 방문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나눔봉사단-경남과학기술대, 사회적기업 육성 MOU 체결

8월 29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MOU의 주요 프로그램인 소셜 프랜차이즈 교육과정은 장애인과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서부경남 최초의 자립형 사회공헌 육성프로그램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큰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8월 14일까지 교육생 모집을 완료, 8월 30일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창업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심사에서 우수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두 곳에는 사업화 지원 혜택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나눔봉사단 문석주 본부장은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착한 기업을 발굴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비에이션캠프, 고객자녀 초청캠프 개최

7월 26일부터 27일, 8월 6일부터 7일까지 2회에 걸쳐 양일간 해군본부 고객자녀 에비에이션 초청 캠프 행사가 진행됐다. 포항, 진해 등 해병대와 해군기지 지역의 부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항공기를 만드는 원리와 다양한 모의 비행체험 등으로 풍성하게 꾸러졌다. 또한 8월 9~10일, 16~17일에는 공군본부 고객자녀 1박2일 초청캠프가 열려 광주비행단과 충주비행단 지역의 자녀들이 에비에이션 캠프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PAV항공기 제작과 비트브릭 항공기 코딩과정을 체험하며 항공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담은 목소리를
보내주세요.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퍼즐
의 정답을 KAI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erospace2030>) 사보 독자세상 코너의
댓글이나 이메일(wowdan@koreaero.com)
로 보내주세요.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
를 증정합니다. 모바일 웹진 어플 설치방법
은 우측페이지 이벤트 내용을 참조하세요.



모바일 독자세상

이번 호 <Fly Together>에서는 같은 여성으로서 '최
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 스토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나라는 잃어도 하늘만은 잃
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하늘을 지켜낸 주인공의 불
꽃처럼 용기 있는 삶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
역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도 주인공과 같은 마음으로 말은 바 위치에서 묵묵
히 최선을 다하는 KAI 가족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
니다. "KAI 파이팅!"

조한선 님(독자)

이번 사보 내용 중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18 참
가기'의 사장님 사진을 보고 같이 촬영하신 분들이
사보를 구해달라며 연락이 와서 몇 권 구해주었습니
다. 우리 사보에 대한 관심과 파급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네요. 우리 KAI만의 사보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
사업의 사보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졌
으니 이 또한 하나의 '소확행(?)'이었습니다.

김경수 부장(컴플라이언스팀)

올해 신입사원 16기로 입사하여 'Fly Together'를 처
음 읽어보았습니다. 16기의 교육현장을 보고 몇 주
전에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다시금 떠올라 참 좋았습
니다. 또한, 현재 KAI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내용들
을 한 눈에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공헌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
으로도 매월 나오는 'Fly Together'의 내용이 기대됩
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사원(성능개발팀)

KAI 직원 분들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많이 지치신
것 같아 회사명(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8행시를 지
어보았습니다. 8행시로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
겠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5위 항공업체로 도약
하고 (국)방력을 증진시키고 방위산업의 핵심이 되
며 (항)공우주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KAI (공)
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로 (우)주 첨단 기술을 위해
도전하는 KAI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야로 노력하
는 KAI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산)과 거친 바
다처럼 앞으로 큰 장애물이 올 때 마다 (업)어주고 서
로 손잡아 끌어주는 KAI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실 연구원(소형헬기항전부장팀)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아니 무덥다기보다 아주 뜨
거운 여름휴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한
지도 어언 30년이 지났지만 아들, 딸들과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해 근속휴가를 내어 맘 자유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8월호의 '우리가족에게 행운
을 안겨준 맘 자유여행기'를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가족여행 후 여행 후일담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족여행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김진주 차장(기체생산기술1팀)



본부별
사내 기자단

- 개발본부 개발지원팀 이현정 과장
pcbs99@koreaero.com
- KFX사업부 KFX사업관리팀 김미영 과장
kmyeong@koreaero.com
- 운영본부 운영지원팀 장재완 부장
aerody@koreaero.com
- 사업본부 사업기획팀 이경태 과장
daeca@koreaero.com
- 관리본부 경영기획팀 백재환 사원
jaehwan.paik@koreaero.com

PUZZLE.

KAI 독자 여러분 중 뇌섹남, 뇌섹녀를 찾습니다!

Q □ 안에 들어갈 값을 구하시오.

973 189 [?] 14 4

8월호 정답 : 7



더욱 간편해진 모바일 앱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우리회사 사보 <Fly Together>가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9월호부터 모바일 사보는 KAI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erospace2030>)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보 앱 등록 기념 이벤트

자신의 스마트폰에 사보 앱을 설치하고 각 칼
럼 속 숨어있는 우리회사 KAI의 CI를 찾아 캡처
후 모바일 사보 앱 이벤트 페이지에 올려주시
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8년 9월 5일~14일

상품

1등



T-50 모형(스탠드형)
(1명)

2등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트콘(3명)

3등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트콘(5명)

8월호 당첨자

- 1등. 형식인중팀 박혜은
- 2등. 상생공정관리팀 이경민 / KFX
제어시험팀 신의윤 / 조립생산팀
박상철
- 3등. KFX설계종합팀 장은경 / KFX
전방설계팀 전성진 / 비행계측팀
권영석 / KFX후방미익팀 정현주 /
조립생산팀3직 박창규